

QuarkXPress 7

한 차원 높은 워크플로 실현



얼마 전 새로운 모습의 QuarkXPress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가기만 한다. 새로운 버전의 XPress 7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 또 그 변화들은 Quark의 지난 명성을 되찾기에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앞으로 출시될 'QuarkXPress 7'을 미리 만나보자.



QuarkXPress(이하 XPress)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세계적으로 3백만이 넘는 등록사용자수이다. 그래서인지 Quark사는 어도비사 Indesign 사용자를 XPress로 끌어오기에 주력하기보다 기존의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

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Indesign CS2가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도비의 Indesign으로 갈아탔을 때도, Quark사는 기존 고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6.5버전을 거쳐 올해 6월 XPress 7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XPress 7은 고객들의 생각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내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표현하지 못했거나, 또는 표현하기 까다로웠던 일들이 간편해 졌으며, 사용자는 예전에 비해 훨씬 적은 수고로 월등히 향상된 표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XPress 7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쇄디자인시장을 겨냥해 공동작업과 워크플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전의 편집은 디자이너 한사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

과물을 출력해 수정하는 작업이 수십 번 반복됐다. 그러나 XPress 7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파일을 가지고 실시간 공동작업이 가능해져 서로 의견을 나누며 더욱 향상된 결과물을 내놓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다.

하나 더, XPress 7은 이런 성공적인 협업시스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편집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통 세팅을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JDF(Job Description Format) 기준으로 언제나 원본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작업이 일반화되면 앞으로는 디자이너가 가제본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이제 다재다능한 편집 프로그램 QuarkXPress 7에 숨겨져 있는 새롭고 다양한 기능들을 디자인, 효과, 공동작업, 워크플로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 전에 새로운 XPress의 사양을 미리 말해둔다. 새로운 XPress는 PowerPC Macintosh(OS 10.4 or 상위버전)과 Windows에서 작동하며, 인텔칩이 내장된 매킨토시의 경우에는 올여름 중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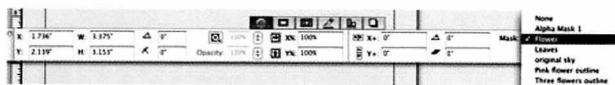


새로운 XPress는 PowerPC Machintosh(OS 10.4 or 상위버전)와 Windows에서 작동하며, 인텔칩이 내장된 매킨토시의 경우에는 올 여름 중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자인적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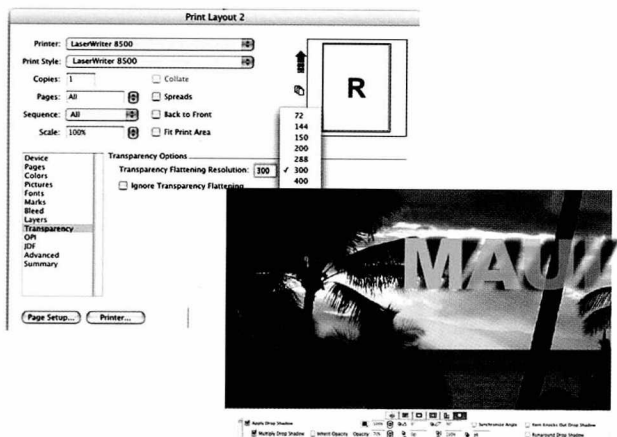
‘투명도조절기능(Transparency)’, ‘그림자효과(Drop Shadows)’와 함께 새로운 버전에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포토샵파일(PSD)을 불러올 수 있고, 복잡한 박스 만들기가 간편해졌으며, 오픈타입서체를 지원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도조절기능(Transpa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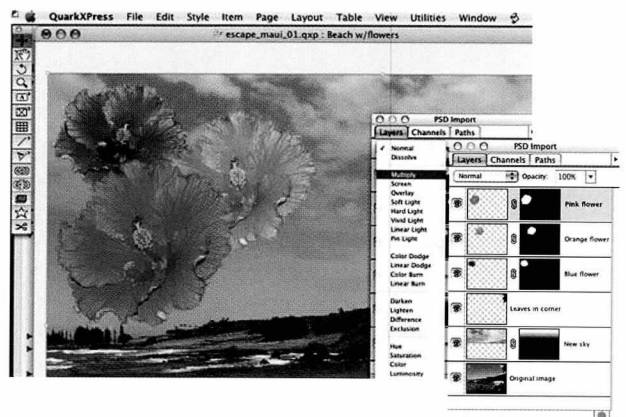
XPress 자체적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다양한 색을 포함한 투명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인디자인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XPress 내에서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자 기능(Drop Shadows)



측정팔레트에 그림자 기능을 두어, 텍스트, 콘트롤러, 포지션, 모양, 색, 각도 등을 첨가해 자신만의 그림자 표현이 가능하다.

포토샵 불러오기(Photoshop Im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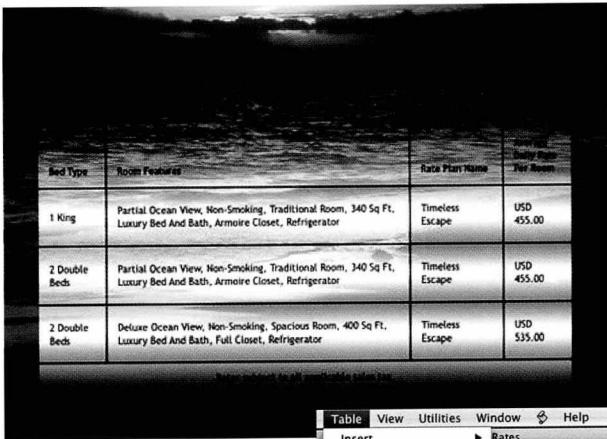


포토샵 불러오기의 경우에 XPress 6.5부터 가능했던 기능이지만, 투명도조절, 그림자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활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또한 포토샵 파일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임포트 팔레트를 이용해 레이어별로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효과(Picture Effects)

그림효과 팔레트 역시 6.5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그때가 단순한 새로운 기능의 추가였다면, XPress 7에서는 이를 보강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포토샵에서 일일이 수정해야 했던 조정(대비, 채도, 색 등)과 필터(가우시안 블러, 엠보스, 노이즈, 기타) 등을 기존 그림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보여준다.

표만들기(Table)



많은 디자이너들이 표만들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XPress 7은 표만들기 작업을 즐겁게 해주도록 배려했다. 우선 비주얼적으로 월등히 향상되었고, 표를 그림과 함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픈타입(OpenType Support)

XPress 7 버전은 기본적인 오픈타입을 제공한다. XPress 6 버전에서 기본적인 오픈타입 폰트를 제공했으나 사실 그것은 트루타입이나 포스트스크립 폰트에 가까운 것이었다. XPress에서는 완벽한 오픈타입 폰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에서 정말 작은 글자나, 큰 글자, 연결된 글자, 파편의 글자 등을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다.



효과적인 측면

프로젝트 VS 레이아웃

XPress 6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예전에 다큐먼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XPress 7버전에서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각 특징에 맞는 페이지를 제작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현재진행중인 화면의 규격 등을 입력해 놓으면 저장되어 작업 전에 손쉽게 불러올 수 있다. 이 기능은 옵션에서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측량 팔레트



새로운 측정 팔레트는 전후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는지 그림 박스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측정 팔레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각의 박스 안에는 기능들이 탭형태로 그룹화 되어 있어 마우스가 지날 때 나타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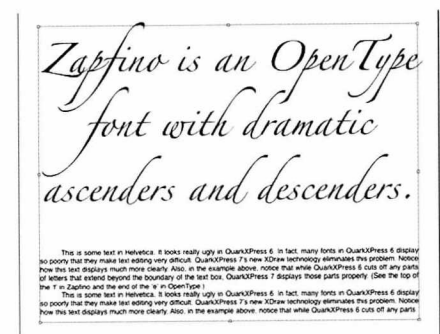
멀티플 윈도우

XPress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멀티플 뷰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품질향상

XPress 7은 새로운 렌더링 엔진이 포함되어 있어 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부드러운 표현



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텍스트를 회전시켰을 때 더욱 자연스런 화면 재현이 가능하고, 또 텍스트 박스 가장자리에 길게 올라가는 것을 잘라내지 않고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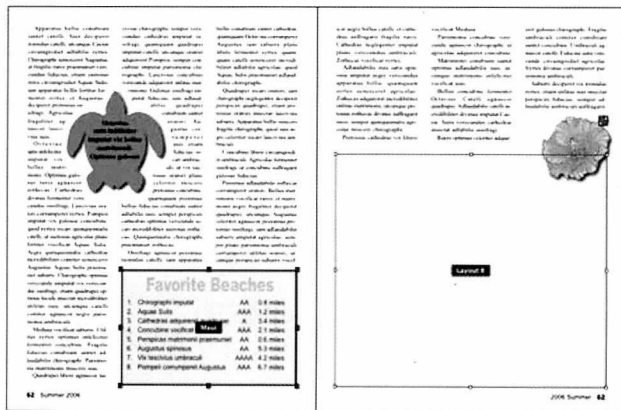
공동작업 측면

XPress 7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향상된 공동작업 능력이 다. 포토샵 파일 불러오기는 물론이고, PDF, 엑셀, 플래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통합적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해 더욱 폭넓고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PDF는 아크로벳 7과 일러스트레이터 CS2의 1.6버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일러스트레이터의 파일(*.AI)을 원본 파일 그대로 불러오기 할 수 있다. 예전 버전에서는 EPS나 PDF 포맷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공유 콘텐츠(Shared Content)

XPress 6버전에서는 박스와 박스 사이에만 동기화가 가능했고 형식이나 형태는 변경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해 XPress 7에서는 사진, 선과 경로 등 모든 형태들이 동기화 되도록 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역동적인 작업이 가능해졌다.

구성 공간(Composition Zone)



이 기능은 가장 탐을 낼만한 기능이다. 한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일정부분을 누군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남겨놓은 채 사람들에게 보내면 사람들은 그곳에 작업을 해놓는다. 그들이 작업한 내용은 자신의 컴퓨터상의 화면에 표현이 된다. 추가되는 서버나 네트워크가 설치가 필요 없고 단지 Quark7만으로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다양한 협업작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작업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공유 레이아웃(Shared Layout)

일반적으로 '구성공간'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페이지의 일정부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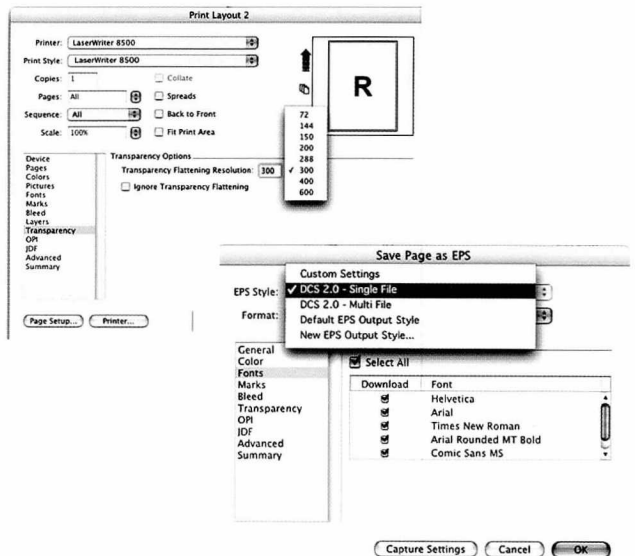
공유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워크플로 관리적 측면

Quark 과제본 (Quark Job Jackets)

XPress 7은 그 자체로 높은 기술력을 보여준다. 이런 기술력은 디자이너들에게 색조정, 일정관리, 마감, 또는 표현의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현실로 구현해내도록 한다. Quark 자체적으로 바로 인쇄해도 손색없는 수준의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물(Output)



XPress 7은 인쇄창이 가지런해졌고, 더욱 향상된 기능을 보여준다. 오른쪽 인쇄의 모양을 보여주고, 왼쪽에 인쇄 옵션 항목들을 정리했으며, 투명도의 정도를 손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속도(Speed)

새로운 버전의 XPress는 매킨토시의 성능을 최대한 살려 처리 속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하드웨어에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계했고, 다양한 성능향상을 고려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무거운 작업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준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